

리튬전지, 반덤핑관세 18.19% 부과

무역위, 일본·미국산에 3년간 적용 ... 스테인리스스틸바 15.39% 건의

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, 미국산 리튬1차전지와 일본, 인디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각각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.

산자부에 따르면, 리튬1차전지에 부과된 관세율은 앞으로 3년간 18.19%이며, 스테인리스스틸바는 5년간 일본제품에 대해 15.39%, 인디아 5.11-15.39%, 스페인 15.39%의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.

리튬1차전지는 국내 생산기업인 비츠로셀이 2003년 7월에,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창원특수강, 배명금속 등 5사가 2003년 5월에 각각 외국산제품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.

주로 카메라의 전원, 전자식 출입구 잠금장치 및 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리튬1차전지는 국내 시장규모가 2003년 6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수입품이 물량 기준으로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.

또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주로 건물 내·외장재, 자동차부품, 주방용품, 전자제품, 화학 및 중공업 분야에 사용되는데 국내 시장규모가 1173억원, 덤핑수입품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 21.7%에 달한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02>